

“진여당체에 마음 두고 심 없는 정진 통해 禪 이뤄”

8 생활 속의 염불선수행

덕산 스님(청주 혜은사 주지)

“만약 누구나 일념(一念)을 내지 않으면 전후가 끊어져 자성미타(自性彌陀)가 홀로 드러나고 자심정토(自心淨土)가 앞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곧 돈오(頓悟), 돈수(頓修), 돈단(頓斷), 돈증(頓證)이기에 지위가 없는 것이다.” <칭허집>

서산 대사는 <심법요초>에서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라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생각이 다해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섯 문은 언제나 자금광(紫金光)을 발하리라”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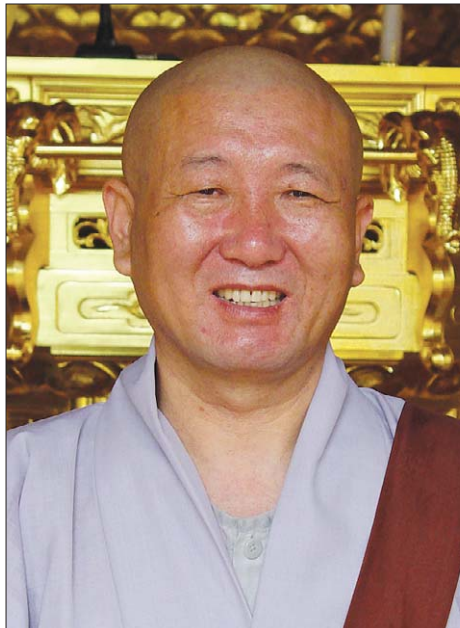
계승을 읊은 바이다.

보통 참선 수행자들은 염불을 경시하기 쉬운데, 영명연수 선사는 “참선과 염불을 함께 닦으면 호량이 날개를 단 격”이라고 했다. 태고보우 스님과 서산 대사를 비롯한 역대 선지식들은 참선과 더불어 자성염불의 공덕을 강조하며, 염불을 권장하기도 했다. 물론 선사들은 서방정토와 유심정토가 둘이 아닌 자성미타(自性彌陀)를 말했다. 우리의 자성, 즉 진여당체(眞如當體)를 여의지 않는 염불이 될 때 염불이 바로 선이 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중국 허은 대사는 염불선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물론, ‘염불하는 것은 누구인가(念佛是誰?)’라는 공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청화 스님(1924~2003)이 생존해 계시던

때 일었던 염불선 불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지만, 요즘도 염불선 수행열기는 여전하다. 염불 관련 서적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 관련 온라인카페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해부터 前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 스님(백련정사)이 염불만일 결사에 들어가는 등 다시금 염불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행에 대한 재가 불자들의 높아진 열망에도 불구하고 선(禪)을 직접 체험하기가 어렵다보니, 많은 불자들이 염불을 통해 선을 체험하는 염불선에 눈길을 돌린다는 분석이다.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을 배워 실감한 체험을 바탕으로 <염불선>(글리아마인드)을 펴내 공부법을 전하고 있는 덕산 스님(혜은사 주지)으로부터 염불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들어보았다.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이른바 실상관(實相觀)입니다. 모든 존재의 뿌리를, 모든 존재를 하나로, 진공묘유(眞空妙有)로, 아미타불의 무량광명(無量光明)으로 보는 삼매입니다. 그리고 천지우주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견해를 끊어잡지 않아, 앞생각 뒷생각에 잡생각이 안 끼이도록 염불하거나 화두를 들고 염념상속(念念相續)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행삼매입니다.

염불정진 할 때 평상시에 하듯 느리게 하거나, 소리 내서 한다면 이러한 삼매를 얻기 힘듭니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속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는 심 없는 정진을 통해서 삼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 관음!’이라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지장보살은 ‘지장’ 등으로) 줄여서 마음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번뇌가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 ‘수행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스스로 법미(法味)를 맛볼 수 있게 돼 수행력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염불하는 자성을 깨닫게 됩니다.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만약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도의 수행법입니다. 본래 나의 ‘생각이전의 자리’가 부처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자리가 우주의 진여당체인 것입니다. 즉 생각이전의 자리를 관하며 염불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지장보살과 여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것이 염불선입니다. 주력이나 간경 또한 마땅히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는 정진이 되어 합니다.

-정토관(淨土觀)에 따라 염불과 염불선이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자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토를 보는 입장이 ‘서방정토(西方淨土)’와 ‘유심정토(唯心淨土)’로 나뉘면서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인지요?

서방정토인 극락세계 또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역시 구경성불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곳이지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삼계가 오직 마음(三界唯心)’이기에, 극락이 서방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며, 이 우주가 본래 부처입니다. 우주는 생명, 즉 우리 본래의 마음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에서 그대로 부처 세계입니다.

-기존의 염불 및 간화선 수행에 비해 염불선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정토염불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간화선에서 ‘무(無)자’나 ‘이뭇고?’ 화두를 들어도 의심이 잘 되지 않아 득력(得力)하는 것이 무척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염불정근으로 업을 녹이며 공부의 묘미를 느낀 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念佛者是誰?)’ 하는 의심을 쟁기면 훨씬 수월하게 득력할 수 있습니다. 염불(주력)하는 그 놈을 의심하면 조사선과 다르지 않은 대신, 기존 간화선보다 빨리 화두 의심에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는 참선 수행자들이 염불선을 닦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인데, 잠자리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지그시 감고 빠른 속도로 속으로 정진하면 스스로 삼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매일여가 돼야 합니까?

오매일여(痲痲一如란 진여당체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나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득력하고 정진력이 생기며 오매일여가 가능하죠. 육신은 무시이래 편안한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뒤로 미루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를 철저하게 물리쳐야만 해요. 하루 이를, 아니 끊임없는 정진으로 오매일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바른 수행의 길이 보일 겁니다.

오매일여가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천정과 사방 벽에 ‘오매일여’나 ‘용맹정진’과 같은 글자를 붙여두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용맹심으로 정진하다 보면 삼매를 얻고, 마침내 우주 만유와 둘이 아닌 진여자성과 결합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조 스님이 강조한 일삼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는 본래 염불수행에서 유래된 것으로 맞습니까?

삼매를 통해 유와 무를 떠난 자리, 나의 본래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선(禪)이자 부처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는 시·공간을 떠난 자리로서 역대 불·조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리이며 산천초목 삼라만상의 본래자리입니다. 일삼삼매란 천지 우주를 오로지 하나의 부처로 보

-본래의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반아가 열리게 됩니다. 경전과 선어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지혜가 열려야 보살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나의 참모습을 보았더라도 곧 바로 늘 당체와 하나가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보살행을 닦았듯이, 내 본래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의심이 끊어진 자리에서 익혀온 습을 녹이는 보임(保任)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염불선은 바쁜 재가자에게 적합한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 좋을까요?

염불은 근본 진여당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맑은 파장입니다. 특히 삼매경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거운 업도 말릴 수 있는 파장입니다. 그러나 삼매에 들지 않더라도 염불자세가 맑은 파장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업이 점점 말려져서 결국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염불선을 바르게 한다면 업을 맑히는 속도는 매우 빠르고 결국 우주와 하나가 되는 열반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불에 익숙해진 염불행자는 조금도 자기의 본래 진여당체를 의심하지 말고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선(禪)을 이뤄야 합니다. 일반 재가자 또한 가정에서 염불선을 바르게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업을 맑히고 가정을 맑히며 세상을 맑히며 우주를 맑히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의심 챙기면 수월하게 득력 나의 본래 진여당체 드러나면 실상 바라보는 지혜 열려



모든 불교신행의 기초인 염불. 염불하는 자성을 깨달으면 참선과 다른 없는 수행법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참조

특정 가법고 설치가 용이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원터치 연등결이 핀

SMD LED전구(정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기업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